

프랑스 씨떼 데 자르 입주작가 선정 전남대 윤애근 교수

“욕심없는 작가는 죽은 작가 내년 정년이지만 석판화 도전”



독자적인 한국화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중진 한국화가 윤애근(64·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가 화가로서 프랑스로 떠난다. 자신만의 작업세계를 고집해도 흥되지 않을 60세를 넘긴 윤 교수의 외국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는 그래서 신선하다.

그는 국내 최대화랑인 가나아트갤러리가 프랑스에서 운영하는 프랑스 씨떼 데 자르(Cite internationale des Arts) 입주작가로 선정됐다. 가나아트갤러리가 창작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씨떼 데 자르는 미술, 음악, 건축, 문학 등 예술인들이 거주하는 예술가촌이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열정

광주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프랑스 씨떼 데 자르 입주작가로 뽑힌 윤 교수는 다음달 3일부터 9월30일까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종이를 여러겹 붙인 겹장지로 화폭을 구성하는 독특한 작업으로 작가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윤 교수는 프랑스 현지 작업을 통해 또 다른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석판화(石版畫)는 꼭 한번 배워보고 싶은 장르였습니다. 목판화와 달리 많은 작품을 찍어낼 수 있는 석판화의 감정과 예술성은 제 작업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 정년을 앞두고 있는 윤 교수가 젊은 작가들이 소화하기에도 만만치 않은 해외 장기체류 프로그램 참가를 결정한 것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열정 때문이라고 한다.

“나이를 먹어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예술에 대한 욕심 만큼은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노장들이 자신의 작업을 통해 바꿀 수는 없지만 끊임 없이 새로운 세계를 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윤애근 작 '공(空)-형기'

예술에 대한 욕심이 없는 작가는 이미 죽은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3개월 동안 파리에 체류하는 윤 교수는 스케치, 프랑스 등 스케치 작품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겹장지 기법’ 작품을 모아 9월 18일~27일까지 현지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겹장지 기법’ 작품 현지 개인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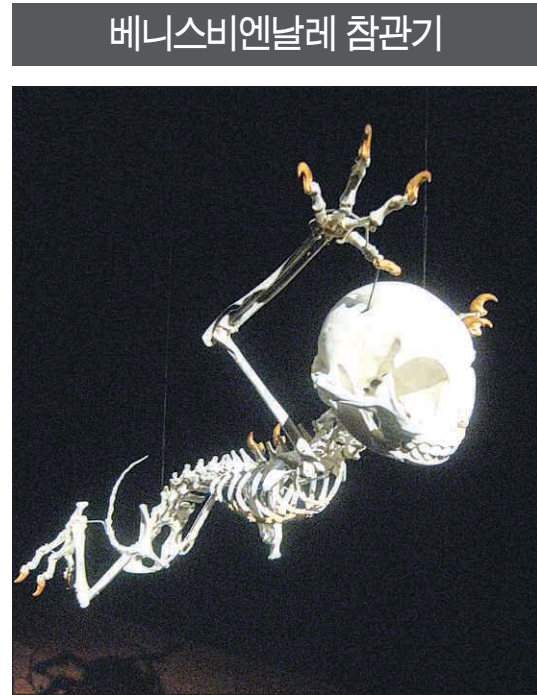
“스케치 작품은 예전의 작업인 수묵 담채가 될 것입니다. 이 작업은 한국적인 것을 추구하는 작가가 모국의 경계 밖에서 작업의 정체성을 찾는 또 다른 시도가 될 것입니다.”

현장 작업을 앞두고 있는 윤 교수는 이 전시를 위해 도시 빈민가나 슬럼가 등 서민들의 생활공간을 찾은 예정이다. 그는 이미 티벳, 인도, 터키, 방글라데시 등 해외 스케치 여행에서도 이같은 맥락의 작품을 선보여왔다.

윤 교수는 중앙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한 뒤 대한민국 미술대전, 전남도·광주시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한국현대미술 오스트리아 초대전, 중국역사박물관 초대전 등 단체전에 참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핫 이슈·실험정신 사라져



베니스비엔날레 참관기

한국관에 전시된 이형구 작 'Mus Animatus'

회화·사진·드로잉 등 특징 없고 국제비엔날레 답지않게 평범 한국관 이형구씨 1인만 초대 차분한 분위기속 10월 수상작 관심

명작적인 몇몇 작품들이 대조를 이룬다.

주 전시공간의 구성에서 자르디니 못지않게 주된 관심을 모아왔던 아스날레에 별도의 이탈리아관과 아프리카관을 할애하고, 맨 안쪽 기름냄새에 찌든 저유소(貯油所)와 옥의 잔디밭에는 중국관을 배치하였다. 특히 아프리카의 현실 문화를 집중 소개하기 위해 아프리카 여러 나라 작가들을 한데 모은 아프리카관은 감독의 특별한 관심을 담은 공간이라 한다.

그러나 베니스비엔날레가 가진 역사적 저력이나 확대된 규모에 비해 정작 기획의 핵심이 무엇인지, 총감독이 던지는 화두나 미학적 제안이 무엇인지가 분명치 않다. 주제부테가 심오한 미학적 명제는 아니더라도 비엔날레답지 않은 보편적이고 원론적인 제시어 수준이다.

더욱이 국가간 치열한 문화경쟁의 장인 국가관들 외에 총감독이 기획한 전시공간에서 전반적으로 강렬한 이슈제거나 특별한 강조점이 없고, 회화·사진·드로잉 등 평면작품이 많아 평이하다 못해 힘이 빠져 있다. 실험정신의 부족과 함께 이를 보완할 다른 큐레이터 없이 혼자서 3년 동안 전시를 준비해 온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관은 안소연씨(삼성리움미술관 학예실장)가 커미셔너를 맡아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예일대 출신의 이형구 1인만을 초대한.

마치 인류학 박물관을 옮겨놓은 것처럼 온통 검은 색의 어두운 방안에 발굴된 듯 한 사람 뼈들을 설치하거나 쇼케이스에 넣어 전시하면서, 한쪽에는 실험실 분위기의 부스와 그의 퍼포먼스를 담은 영상으로 구성하고 있다.

작년 말부터 항공과 현지 숙박 예약이 밀릴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른 ‘그랜드 투어’의 열기 속에서 막상 첫 문을 연 베니스비엔날레가 의외로 차분해서 오히려 장외의 경이랄 특별전들이 빛나고, 10월로 미뤄진 수상작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인호·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

2007년 6월은 세계 미술계의 황금기라 할 만큼 빅 이벤트들로 풍성하다.

세계 최고 역사를 자랑하는 제52회 베니스비엔날레(이탈리아·10월~11월21일)와, 국제 아트페어의 최고로 평가받는 바젤 아트페어(스위스·13~17일), 현대미술의 미학적 담론을 이끌어가는 5년 주기의 제12회 카셀도큐멘타(독일·16~9월23일), 10년에 한번씩 도시 공공조형물의 문화자산을 풍요롭게 가꾸어가는 제4회 윈스터조각프젝트(독일·17일~9월3일)까지 4개의 대형 국제미술 행사가 1주일 사이에 잇따라 개막했기 때문이다. 이 ‘GRAND TOUR’ 행렬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세계의 미술관계자와 애호가들이 온통 유럽으로 향했다.

이 가운데, 11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인 로버트 스토어(Robert Storr)가 총감독을 맡은 베니스비엔날레는 ‘감각으로 사유하고 마음으로 느끼기 : 현재진행형 속의 미술’이라는 긴 주제로 맨 먼저 문을 열었다. 프레 오픈 기간의 ‘그랜드 투어’ 열기가 빠져나간 개막 직후인 6월 11일 현장은 너무 차분했다.

이번 비엔날레는 국가관 중심의 자르디니 공원과 아스날레 참고들의 기획전 공간 외에 섬 곳곳의 여러 장소에서 국가관을 갖지 못한 나라와 관련 기관, 갤러리들의 전시까지 역대 최대인 76개국 200여명의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시는 최근의 국제정세와 상황 탓인지 현대인류사회 또는 인간 자신에 대한 진단과 전쟁·폭력·상처에 대한 직간접적 표현들이 많으면서, 근원적이고

‘한일아시아 평화 포크 잼버리’ 28일 광주시청 콘서트홀

민주·인권·평화·자유를 노래한다

포크(folk) 음악은 시대 정신의 표상으로 오랜 기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한국과 일본의 포크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 ‘한일아시아 평화 포크 잼버리’가 28일 오후 7시 광주시청 3층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제8회 전국체전 개최를 기념해 광주시와 지역 음악계가 함께 준비한 이번 행사는 ‘평화를 노래하자! 우정을 쌓아보자!’를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에서는 포크 그룹 ‘해바라기’ 출신으로 ‘신촌 블루스’를 거쳐 솔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여울목’ ‘누구없소’의 한영애가 광주에서 첫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 음반을 발매



한영애 사토 유키에

한 김두수, 한국 언더그라운드 포크의 산 증인으로 지금은 ‘동요 부르는 가수’로 유명한 이성원, 광주 출신으로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음반 ‘내 가슴에 달이 있다’를 발표한 수니 등도 무대에 오른다. 또 꾸준히 지역

포크운동을 이끌고 있는 꼬두메와 수많은 포크송을 작사·작곡하고 현재 ‘포엠 콘서트’를 꾸리고 있는 한보리도 함께 무대에 오른다. 일본 출연진의 면면도 눈길을 끈다. 신중현 제자로 1995년 특급 ‘곰창진골’을 결성하기도 했던 사토 유키에는 앨범 ‘안녕하십니까’를 발매, 한국에서 최초로 음반을 낸 일본인 가수로 기록됐다. 가수 뿐 아니라 영화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마카미 칸은 지난 2월 한국 라이브 앨범을 발표했으며 노자와 교지는 일본 포크의 걸작으로 꼽히는 ‘백일몽’을 발매한 가수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2-430-79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대 아동미술학과展

내달 2일까지 무등예술관

광주여대 아동미술학과(학과장 박영진) 제 1회 과제전 ‘이경화 작 ‘생명의 꽃’ 다음달 2일까지 무등예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광주여대 아동미술학과 1, 2학년생들의 참신한 작품 30여점이 선보인다.

참가 학생들은 김다빈 김슬기 박지혜 박유진 신난아 유미화 이가영 이정은 이지현(이상 1학년), 권은혜 김선진 박복화 송현주 유자영 이경화 이미소 이아람 장재과 전소영(이상 2학년)씨 등이다. 문의 062-228-6624.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경화 작 '생명의 꽃'

메세나協 기업-예술단체 2차 결연식

한국메세나협회의(회장 박영주)가 주최하는 ‘2007 기업과 예술의 만남 2차 결연식’이 26일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한국메세나협회의와 문화관광부가 공동 주최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은 문화예술단체와 이들을 지원

할 수 있는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작년부터 시작했다. 이번 결연식은 커플은 총 19쌍. 특히 중소기업이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 예술단체에 추가로 국고지원금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를 통해 12개의 중소기업이 예술단체와 결연한다.

결연 커플은 한테크-광양버들놀이보존협회, 이오테크닉스-삶과꿈행보오페라 싱어즈, 안국건강-작곡마당, 세일이엔스에-예술음악무대, 한국철강신문-서울프린트클럽, 비스킷소프트-극단 아리랑, 대준-스프링웨이브스튜디오 등이다.

movies Happy Time 영화야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원단약국사거리

엔터시네마 총창로 5가 228-2700 1관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콜롬버스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미지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 뒷편)

즐거움이 가득 www.mct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총창로 1가 232-9106

새로운 기쁨 www.primuscinema.com/www.jellicinema.com 제일시네마 총창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